

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시	2019. 5. 15(수) / 총 2매(본문2)		
담당 부서	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하준, 사무관 우병진, 주무관 문지영 • ☎ (031) 210-2730, 2731 		
	한국건설기술연구원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위원 오윤석 • ☎ (031) 910-0674 		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1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15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토지리정보원 -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맞손 공간정보산업 키운다

15일 정밀도로지도·미래융합사업 발굴 등 공간정보 활용 고도화 MOU 체결

- 국토지리정보원(원장 유기훈)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한승헌)이 공간정보 구축 기술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*을 체결하였다.

* 일시: '19. 5. 15. 11:00, 국토지리정보원

** 참석 : (국토원) 원장, 지리정보과장, 공간영상과장

(건설연) 원장, 산업혁신부원장, 미래융합연구본부장, 대외협력홍보부장

- 이번 MOU의 내용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미래융합사업 발굴 협력, 공간정보 연구 및 활용 확대,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
MOU 주요내용

-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공간정보 미래융합사업 발굴을 위한 인력교류 및 정보, 장비, 시설의 공동 활용 등 협력
- 공간정보 관련 연구사업 발굴 및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협력
-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협력 등 기타 공간정보 관련 협력

-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연천SOC실증연구센터를 정밀도로지도 제작 장비인 이동형측량시스템(MMS)의 검정 시설로 활용하는 등 연구 인프라(시설, 장비, 정보 등)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 안전한 국토개발과 스마트건설을 지원하는 측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 협력분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.
- 이밖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2020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토위성센터의 차세대 중형위성(국토관측위성) 자료 활용 고도화, 지하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관리에 공간정보 활용 협력, 스마트시티/공간 디지털트윈 기술 등 신산업/신기술 발굴 및 개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양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정보 표준, 건설기준 등 개선을 위해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.
-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가 스마트 건설과 국토정보 관리에 필수 요소이며 양 기관의 시설, 인력, 장비, 정보 공유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·강화해 갈 계획이다.
- 또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미래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구축을 지속함과 동시에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, 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문지영 주무관(☎ 031-210-27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